

금호타이어, 첨단 자동화 설비 “우뚛”

기존 공장보다 생산성 2배 향상 ... 전체 생산규모 3660만본으로 확대

금호타이어가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6번째인 최첨단 자동생산시스템 APU(Automated Production Unit)을 갖춘 공장을 준공했다.

금호타이어(대표 신형인)는 12월18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 APU 공장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 김철두 산업자원부 차관, 김승광 군인공제회 이사장,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 등 대내외 초청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금호타이어 평택공장 준공식



금호타이어가 2010년 안에 세계 빅5 타이어 메이커 진입을 목표로 경기도 평택시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1만 2000여평 부지에 건설한 평택공장은 자동화시스템 개발 및 공장 건설에 1000여억원이 투입됐으며 1일 약 6000본(개), 한해 200만본 생산규모를 자랑한다.

국내 타이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평택공장에 도입된 APU는 현재 미쉐린, 브릿지스톤, 굿이어, 콘티넨탈, 피렐리 등 세계 타이어업계 상위권의 5개 기업만이 개발·운

용하고 있다.

특히, 금호에서 독자 개발한 APU 시스템은 정련, 압연, 압출, 재단, 비드, 성형, 가류, 검사 등 기존 9개로 독립된 타이어 제조공정을 자동 온라인화(Continuous Process)해 하나의 Unit에서 생산하는 소형 플랜트 개념의 혁신적인 타이어 자동화 생산시스템으로, 제조라인 길이가 기존 1.2Km에서 800m로 줄어들고 전체 투자비도 기존 공장의 70%에 불과하는 등 투자 효율성을 높였다.

생산성 면에서도 1인 시간당 생산량이 114Kg에 이르는 등 기존보다 2배 정도 높일 수 있다

2002년 매출 기준으로 세계 9위 타이어 생산기업인 금호타이어는 2003년 7월1일부터 금호산업에서 분리돼 금호타이어로 새롭게 출발했으며, 평택공장 준공으로 광주 공장 1570만본, 곡성공장 1360만본, 중국



남경금호타이어 530만본 등을 포함 총 3660만본의 생산규모를 갖추게 됐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19>